

과학벨트는 지역발전과 연계되어야 성공한다



육동일 | 지방분권
촉진위원회 위원,
충남대 교수

입진년 새 해가 밝았다. 흑룡의 해이기도 한 올 해는 희망속에 비상하
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작년,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 불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충청권을 중심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과학벨트조성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거점지구로 충남 연기군, 천안시, 그리고 충북 청원군은 기능지구로 확정됐다.

이제 충청권은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기초과학의 허브'로 조성함으로써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을 책임져야 할 중차대한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대전은 물론 충청권 전체 주민의 미래 삶도 과학벨트의 성공여부에 따라 크게 달다질 것이다. 무엇보다 올해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로 탄생하게 될 세종시와 세종시민의 운명은 이제 또 한번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그간 숏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어렵사리 세종시 원안을 지켜낸 충청민들이 앞으로 국가와 충청권 그리고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과학벨트 추진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중단없이 정상 추진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지금 과학벨트는 그 입지만을 서둘러 발표했을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다. 천문학적으로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조달방법도 불확실하다. 부지조성비용 등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역에 떠넘긴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게다가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역할분담도 모호해서 상호 연계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지도 걱정이다. 그러니 세종시의 우여곡절을 속 다 태우며 지켜본 대전과 충청민으로서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른 하나는, 과학벨트가 반드시 지역발전과 연계되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것은 과학벨트의 성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외국의 성공적 사례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미국 남동부의 테크노벨리 '리서치트라이앵글 파크

(RTP)는 1950년대 담배와 목화를 주산지로 하는 전형적인 농업지대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첨단 산업과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탈바꿈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중심도시 랠리시, 더럼시 및 채플힐시 등은 3개 도시를 연결한 삼각벨트를 조성하여 상생발전에 성공했다. 각 도시에 소재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과 사립대학 듀크대학 등은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했다. 과학벨트 내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는 크게 늘어났고 지역의 전체 소득은 급상승했다.

무엇보다 주민들은 지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속에 미래에 대해 꿈과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의 좋은 학교와 대학에서 육성되어 과학단지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필란드의 지역균형발전을 성공시킨 오타니에미 과학단지, 21세기를 이끌어 갈 세계 10대 첨단과학기술도시 인도의 실리콘벨리 방갈로르 등이 앞으로 세종시가 나아가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발전에 있어서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대전과 충청, 그리고 세종시와 지역민들은 다시 태어나는 자세로 다음의 과제들을 착실히 풀어가야 할 것이다. 먼저 지역의 비전과 목표를 재정립해야 한다. 과학벨트의 입지는 지역발전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대전시, 충남·북, 그리고 세종시의 비전과 목표는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의 기회를 소외되는 사람없이 확대하는 것이다. 과학벨트의 성공적 조성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의 소득이 증대해야 하며, 지역의 인재가 육성되어 지역과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농업, 전통산업들도 과학벨트와 연계되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발전의 성공적 사례 뒤에는 지역 지도자의 빛나는 지혜와 용기가 있었다. 실리콘벨리를 조성케 한 스탠포드의 터만 교수, 소피아 앙티폴리스를 세계적인 과학도시로 변모시킨 지역정치가 라피드, 농촌 마을 미국 달톤시를 세계 최고의 카페트 도시로 만든 평범한 시골소녀 에반스가 바로 그 성공 리더십의 주인공들이다. 대전, 충남·북, 그리고 세종시도 미래를 보는 혜안으로 치밀한 전략을 만들고 지역의 대화합을 이끌어 낼 새로운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벨트가 입지한다 해서 과학도시가 저절로 되지 않는다. 시민들의 과학적 사고와 활동이 지역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삶과 연계될 때 명실상부한 과학도시가 된다. 외지로부터 새로 유입되는 사람과 문화에 대해서도 개방성과 관용성을 갖춘 도시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대덕연구단지가 조성된 지 40년이 다되어 가는 대전시도 도시문화와 시민의식을 재정립하여 세계수준의 과학도시로 재탄생해야만 한다. 내년이면 세종시민의 위상과 역할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이제 세종시민도 과학시민, 특별자치시민, 그리고 광역시민으로 새로 태어나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과제가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일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된 오늘까지 풀지 못한 숙제가 지역이 행정구역의 틀 속에 갇혀있다는 사실이다. 각 자치단체들은 국경보다 더 높은 벽을 쌓아놓고 지역 간, 자치단체 간 협력하지 않는다. 현 정부가 광역경제권을 설정해서 지역의 광역적 발전을 촉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성공적이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과학벨트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도 대전, 충남·북,

세종시는 행정구역을 초월해서 협력해야 한다. 과학적 활동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발전은 행정 구역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뉴욕, 런던, 동경, 토론토 대도시권 등은 세계 최상급의 국제화된 도시이며 모두 대단위 도시권 역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전, 충남·북, 세종시는 대도시권역권 차원에서 주요 항공교통의 결절지로서 청주공항을 키우고 국제기구 또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유치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처럼 충청권이 과학벨트의 성공적인 조성을 통한 세계적인 과학의 메카로 발전하는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행정구역 속에 4개 시도가 계속 안주해 버린다면 미래를 향한 비전과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충청권은 대단위 권역 속에서 과학벨트와의 연계를 통해 경제의 활력과 주민들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교통, 취업, 환경, 교육, 치안, 지역개발 등의 문제를 지금부터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디지털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다가오고 있다.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는 두 개의 도시가 있다. 하나는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도시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상에 구축된 가상도시이다. '사이버 헬싱키'는 오프라인상의 주택, 거리, 공원, 백화점, 관공서, 미술관 같은 도시 전체를 사이버상에 그대로 옮겨 놓았을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도시 전체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우리도 '리얼 사이버 충청권'을 인터넷상에 구축한다면 충청권 지역의 상생발전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이 훨씬 편리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세계화, 고속정보화, 지방화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라 행정구역의 의미가 퇴색되어가고 있는 반면, 점차 지역 간 협력행정이나

전략적 제휴,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간 공동투자, 공동협약, 개발신탁 등 지역협력의 방안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전시는 대전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절호의 기회를 다시 맞고 있다. 그런데 대덕특구가 과학벨트의 조성하고 함께 성공하려면 충남·북, 세종시와 협력해서 자금, 인력, 기술 등이 교류되어야 하며 과학벨트와 특구개발의 파급효과가 대전은 물론 충남·북과 세종시에 까지 극대화되도록 준비단계부터 같이 검토해야 한다. 또 충남이 백제권·내포문화권개발을 비롯한 4대전략산업 육성 계획들도 대전시와 같이 협조해 나갈 때 그 성공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요컨대, 세종시 문제를 공동 대처해 온 대전·충남·북은 이번 계기를 통해 꼭 닫혀있는 행정구역을 넘어 공무원간, 대학간, 기업간, NGO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충청권은 과학벨트의 조성하고 함께 같이 발전해야 한다. 개별적인 발전은 한계가 있다. 지금부터 같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전략을 치밀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충청권 자체의 발전과 함께 영남권, 호남권과 충청권과의 상생발전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도 과학벨트의 조성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올 해는 희망과 용기를 상징하는 흑룡처럼 상승의 기운을 타고 충청지역민 모두가 행복한 삶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는 한 해가 되도록 새해 벽두부터 힘차게 달려 나가야 할 것이다.